

‘アオハルしています (青春しています) !’ -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일본어와 한국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네가 친구들 여러 명과 바다에 놀러 갔을 때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바다에 가서 다 같이 재미있게 여름을 만끽하고 왔다고 아는 일본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青春してますね!’

그때 대충은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지만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 한국어 학습자가 쓴 작문 내용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청춘해요?’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는데 몇 년 전에 친구에게서 들었던 것을 생각해 내고 ‘先生も青春していますか?’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青春’ (한국어로 ‘청춘’)이라는 말은 사전에서는 ‘꿈이나 희망에 찬 활력이 넘치는 젊은 시절을 인생의 봄이라고 비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주 고등학생들의 연애이야기나 학교 축제에서의 활동과 같이 학교 생활을 즐기며 잘 보내고 있는 것을 나타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青春’에 ‘する’를 결합해서 동사 ‘青春する’, 나아가 현재 ‘青春する’를 ‘している’, ‘青春している’라는 형태로 그러한 활동을 나타내거나 즐기고 있다는 뜻으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青春していますか?’를 한국어로 ‘청춘해요?’라고 해도 그 말의 뜻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광고에서 ‘청춘해요!’라는 문구가 쓰인 적이 있는 듯한데 역시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청춘’이라는 명사에 ‘하다’를 결합해서 ‘청춘하다’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반적이지 않음).

한국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청춘’의 의미를 찾아보면 ‘십 대 후반에서 이십 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 또는 그런 시절을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하다'는 아래의 ①과 같이 '공부'나 '청소'와 같이 어떤 동작성을 가지는 명사에 결합해서 'する'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②와 같이 상태나 성질 등을 나타내는 표현 뒤에 결합해서 형용사로 만들 때도 사용됩니다.

① 공부 + 하다 → 공부하다 <동사>

② 유명 + 하다 → 유명하다 <형용사>

즉, '청춘'은 '십 대 후반에서 이십 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 또는 그런 시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동작성이나 어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의 '청춘하다'는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일본어의 '青春する'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青春する'는 더이상 '青春+する'와 같이 단순히 두 개가 합쳐진 의미가 아니라 '꿈이나 희망에 찬 활력이 넘치는 젊은 시절, 연애, 학교 축제에서의 활동과 같이 학교 생활을 즐기며 잘 보내고 있는 것'이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청춘하다'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쓸 때마다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青春していますか'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게 학교 축제와 같은 학교 생활에 대한 것이라면 '학교 생활 재미있어요?', 젊은 시절을 '楽しんでいますか'라는 뜻이라면 '하다'를 쓰는 게 아니라 동사 '즐기다'를 써서 '청춘을 즐기고 있어요?', 또는 연애 이야기라면 '남자/여자 친구 있어요?'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이것과 비슷한 케이스의 표현을 최근에 찾았습니다. SNS나 인터넷 상에서 가끔 'カフェする'라는 표현을 보거나 합니다. 'カフェして帰ろう'나 '一人カフェしている', 이러한 표현도 원래라면 'カフェに行ってコーヒーなどを飲んで帰ろう'나 '一

人でカフェに行ってコーヒーなどを飲んでいる'라고 해야 할까요? 역시 '青春する'과 같이 'カフェする'도 단순히 'カフェ+する'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カフェして帰ろう', '一人カフェしている'를 한국어로 표현한다면 '커피숍 갔다가 가자.', '혼자서 커피 마시고 있다.'와 같이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青春する'나 'カフェする'는 아직 한국어로는 일본어만큼 자연스럽게 읽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어를 한국어로 생각할 때의 차이점으로 조금 특별한 '青春している'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青春している'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무엇을 나타내지는 쓰이는 문맥에 따라서 한국어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어의 애매하면서 알 것 같으면서 모르는 듯한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이런 확실하지 않은 뭔가 답답한 느낌이 청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청춘을 즐기고 있으세요? 저는 마음만큼은 청춘……입니다!

박천홍 (도쿄대학교)